

“성주간” 저녁기도회(4/14-18) & 망부활절 새벽기도회(4/19)

04/13/2025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마지막 일주일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지내셨습니다. 30세 무렵(눅 3:23)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절기를 보내신 것을 계산해 보면 3년 정도의 기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에 주목합니다. “월요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에 부활하신 그 한 주를 말입니다.” 바로 이 일주일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2000년 교회 역사 속

에서 <고난주간> 혹은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한 주간을 맞이하여 한울림교회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매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성주간 저녁기도회>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묵상해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특별한 한 주간 더더욱 주님을 묵상하고자 저녁 시간 모여서 함께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ZOOM으로는 하지 않고 현장에서만 합니다. 영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듣는 시간이 아니라,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특별한 <성주간>을 구별하여 각자가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 속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8시에 있는 저녁기도회에, 토요일에는 새벽 5시 30분에 있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의 <Via Dolorosa :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묵상의 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